

“가슴뛰는 열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최종평가회

김해노인종합복지관(관장 마상천)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푸른숲 교회 2층 강당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1년을 결산하는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회는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7년 사업성과보고, 사업단별 소감문 발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1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평가회를 마무리 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웰다잉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마상천)에서는 2017년 평생교육지원사업 우수평생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인생여행” 웰다잉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는 아름다운 인생여행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고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복지관 3층 사회교육 3실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웰다잉 전문강사가 여가설계, 죽음 인식개선, 호스피스, 아름다운 삶 마무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취재 당일 장수사진 압화 액자 제작에 참여한 윤병호 어르신은 “오늘 나의 생전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 했는데, 마른 꽃잎으로 예쁜 액자를 만들 수 있어 너무 기분 좋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웰다잉 프로그램은 올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우리동네 소식通



02 | 가야왕도 김해 이야기 1 03 | 가야왕도 김해 이야기 2 04 | 복지관 이야기 및 활동소감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발행인 마상천
편집장 권난희 편집인 박금자 김지윤 김차용 박용순 박임진 박호철 백정자 신영연 이석근 이순남
주소 5088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구산동 756) 전화 055) 310-8400 팩스 055) 310-8499

활동 소감



박금자 | 다른 참여자들보다 늦게 기자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김해 주요 명소를 취재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



박호철 | 기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기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에 늦은 나이지만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



김지윤 | 다른 참여자들보다 다소 늦게 합류하게 되었지만 기자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다.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다부진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백정자 |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분들과 실버기자단을 함께 하게 되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함께 취재도 하고 전문교육도 받으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여가생활의 기회를 마련해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복지관 기자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김차용 |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교육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자로서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사를 많이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신영연 | 5월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신청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기사 쓰는 것도 재미있다.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도 취재하고 복지관의 유익한 소식을 전해 주는 기자로서 활동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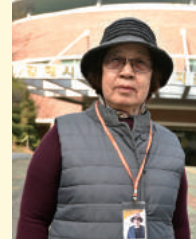
박용순 | 기자단 활동을 통해 김해의 많은 명소들을 취재할 수 있었다.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이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싶다.



이석근 | 복지관 실버기자단 활동을 통해 신문 제작 과정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UCC교육, 김해 주요명소 견학 및 취재 모두 의미있는 시간 있었다. 기자단 활동이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박임진 |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기자단 취재활동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멋진 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이순남 | 첫 걸음은 언제 어디서나 조심스럽고 가슴 설렌다. 길을 간다는 것은 늘 고르고 평탄하지는 않다. 고속도로, 비포장 길, 산길, 들길 다양하다.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끌려가느냐 즐기며 가느냐다. 복지관 솔기마다 찾아가며 봄날의 나비처럼 기쁨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고자 다짐한다.

자동차 오가는 국도변에서 삼사 분 거리
경운산 봉우리가 모락모락 고봉밥 담아 놓고
어서 와 허기달래 손짓하는 날이면
구산동 김해대로1902번길 12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는다

세속 먼지 닦고
험렁한 곳 조이고
관절엔 약간의 기름도 치면서
심신(心身)을 말짱게 정비 하노라면
노후를 봄날로 인도하여
무료함을 싹 씻어주는 도량(度量)이 거기 있다

복지관 뒷산에는
품어 아름 할 만큼 허리 굽고 키가 큰
벚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목련, 은행나무 울창하고
구구단의 구구에서 막혀 전전공공하는 산비둘기와
사랑놀이 숨바꼭질 속에 딸꾹질하는 빠꾸기가
속마음 다 토해 내며 물어가 윙글 사람 찾기도 한다

오늘도
동쪽 분성산을 뒤로하고
남쪽 임호산을 걸닐길 하면서
내 집인 듯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는다.

실버기자단 **이순남**



꿈꾸는 실버기자단은 2016년 김해시 복지재단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김해누리! 행복누리! 기금 조성사업의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꿈꾸는 실버기자단은 기자단 양성교육, 언론사 기자체험, UCC 교육 및 제작 등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복지관 곳곳의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22회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 - 불의여신 백파선, 그 숨결을 만나다 -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효진)가 주관한 제22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가 2017년 10월 27일(금)부터 11월 5일(일)까지 10일간 김해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가야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김해에서 흙에 혼을 담은 사람들과 함께 “불의여신 백파선, 그 숨결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시행사(주제관·역사관 등 15종), 체험행사(대헌도자기 시연 등 14종), 무대행사(관객들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등 13종), 시연행사(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등 7종), 부대행사(전통가마 불지피기 등 11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번 김해분청도자기 축제는 분청의 독특하고 다양한 기법을 따뜻한 감성으로 소박하면서도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창작하여 선보이고 김해 도공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전 세계에 김해분청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준말로 미술사학자 고유섭이 명명하였다. 대부분 지방의 민요(民窯)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특징은 백토를 그릇 표면에 씌우는 백토분장기법과 분청사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하고 다양한 장식법에 있으며, 도공 스스로 창작해낸 소박하고 솔직하면서 회화적이고 해학적인 느낌은 그 어느 시대의 걸작들보다 한국적인 미적 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전국 최대의 도자기 축제인 김해분청도자기 축제와 함께 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와 먹거리 등으로 눈으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물론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김해분청도자기 축제 측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교통편은 아래와 같다.

- ▶ 승용차 이용시 : 남해고속도로→진례IC→진례면 방향(좌회전)
- ▶ 대중교통
- 시내버스 | 김해여객터미널→진례농협(44번, 1일 29회 운행)
- 시외버스 | 마산시외버스터미널(합성동)→진례농협(1일 12회 운행)
- 경 전 철 | 수로왕릉역 하차→김해여객터미널(44번, 진례농협-약 30분간격)
- K T X | 진영역→진례농협(15번→40분 간격)



가을추억 만들기 -가야테마파크에 다녀오다 -

벽에 걸린 카렌다의 색깔이 온통 빨간색이다. 올해는 추석연휴·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들이 이어져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정을 돈독히 이어줄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지방마다 축제 소식이 들린다. 파란하늘!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설렌다. 어딘가 떠나고 싶은 달이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견습 기사단원 10명이 10월 17일(화) 가야테마파크를 관람 취재하고 돌아왔다.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로 만족할 만한 장소였다. 인제대학에서 상동 IC 방향으로 가다 왼쪽 암반 폭포를 따라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고 나니 산 중턱에 넓은 주차장과 이국적인 세계가 펼쳐졌다. 시간은 오후 1시가 넘는 시간으로 입구에는 선생님을 따라 어린이집 원생들이 짝을 지어 손을 잡고 재잘대며 쏟아져 나온다. 가야관에서 간단한 점심을 하고 입장을 했다. 웅장한 철광산 공연장이 위용을 자랑하며 맞는다. 가을 국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 온통 꽃향기로 가득하다. 오른쪽으로 접어들어 ▲전사 체험장 ▲공예 체험장 ▲도자기체험관 ▲철기 체험장을 둘러보고 나와 스토리 텔링 전시관(가야왕궁, 일본관) 야외전시 작품(쌍어, 파사석탑 등 가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둘러보다 체험장마다 초중고등 학생들의 진지한 작업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박수를 보냈다. 더러는 나비처럼 꽃을 즐기는 사람, 조형물에 눈을 떼지 못하고 주위를 도는 아이들, 목에 분홍색 이름표를 걸고 삼삼오오 짝지어 관람을 즐기는 할머니 부대 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조심스레 다가가 어디서 오셨나 물으니 부산 영도에서 왔다는 한 할머니는 모든게 신기하고 좋다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것도 즐겁다. 활을 어깨에 걸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남자 초등학생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2천 년 전 가야의 신비를 보고 느끼며 오감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



2017 김해시복지박람회 - 살맛나는 가야왕도 김해!! 복지에 물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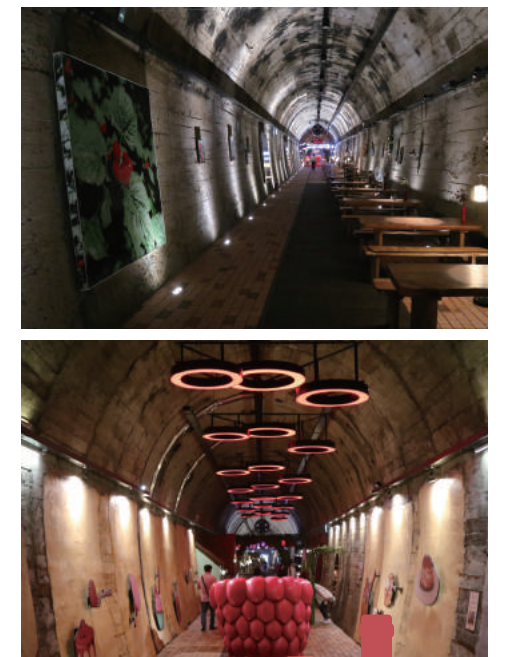
김해시와 김해시복지재단이 주최·주관하는 2017 김해시 복지박람회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김해 수릉원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김해시장,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내빈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김해시복지박람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복지가 확산 되어가는 현실에서 많은 시민이 복지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하는 지역주민 문화공연과 복지시설, 보호시설, 공공기관 등 홍보체험관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야왕도 김해 ZONE에서는 가야역사 및 복식 체험, 가야왕도 김해 사진전 “어제와 오늘”이 전시되고, 장군차 홍보 및 다도체험도 할 수 있다. 이번엔 개최되는 복지박람회를 통해 김해시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복지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 풍경 보며 딸기 와인 한 잔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제 1기 수습기자 교육생으로 9월 19일(화) 생림 와인터널을 다녀왔다. 추석을 앞둔 산과 들은 성장을 멈춘 채 물기를 잃어가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담장 안 석류와 대추가 수줍은 홍조로 반기며 앞마당에서는 수확한 고추가 빨강게 마르고 있었다. 차창을 따라오는 논, 밭, 아산도 제자리에 서서 숨을 돌리다가 했더니 산그늘이 더욱 쓸쓸해 보였다. 삼랑진을 안고 흐르는 낙동강 물소리도 햇살을 등진 채 소리 없이 흐른다. 목적지 와인 터널은 삼랑진 철교를 건너기 전 왼쪽 3·4분 거리에서 레일파크와 같이 만난다. 매표소 옆에는 새마을호 열차 두 량을 리모델링하여 열차 안 분위기를 살린 카페가 구성되어 있다. 와인동굴 역시 기존의 생림터널을 리모델링하여 김해의 특산물인 산딸기를 이용한 산딸기 와인 전시 판매를 위한 관광 테마파크로서 산딸기 소녀 “베리”와 함께하는 포토존과 빛의 터널, 트리아트를 이용한 볼거리 등을 보여주고 있다.

- 총연장 485m(와인저장고 215m / LED 빛 터널 70m / 베리의 산딸기 마을 60m / 와인판매 및 시음 90m / 와인 전시장 50m) 터널 안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와인 향기가 온몸에 스며든다. 와인의 역사와 종류를 알려주는 글과 인간에게 주는 찬사의 글이 눈에 띈다. 와인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걷노라면 은은한 음악과 조명이 마음을 흔든다. 그림, 시(詩), 포토존, 꽃밭이 어우러져 나비가 반기고, 벚꽃이 꽃 터널을 이룬다. 마지막 트리아트 관의 환상은 관을 나온 뒤에도 가시질 않는다.



나무에게서 배우다

국립 김해박물관(관장 임학중)에서는 지난 6월 27일(화)부터 9월 24일(일)까지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국립 김해박물관 나무이야기”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박물관 주위에 자생하는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곰솔, 담쟁이 등굴 등 60여종의 '나무들로 나무에게서 배우다', '나무와 사람', '나무문화, 열매를 맺다', '나누고 받다, 우리결의 나무들', '나무를 만나다, 숲으로 들어가다'를 테마로 하는 사진전이다.

아울러 이번 사진전은 나무에 대한 보존처리와 수종분석을 통한 이용과 가공 활용방법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과 나무사랑을 가지게 하고 더불어 애항심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휴일·주말 가족 나들이로 적합하여 자녀교육장과 가족의 힐링장소로써 알찬 하루가 되리라 본다.

